

## 학회소식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회의 개최

1. 일자: 9. 3.(월) ~ 9. 4.(화), 2일
2.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1층 그랜드볼룸)
3. 참가자: 세계 35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4. 주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Constitutional Justice and Democracy)
  - 세션1(헌법재판의 역사와 현재) / 9. 3.(월) 10:30~15:15
    - 발표: 체코, 이집트, 헝가리, 카자흐스탄, 몽골, 미얀마, 태국, 우즈베키스탄, 임지봉 교수
  - 세션2(의회 및 선거와 헌법재판) / 9. 3.(월) 15:45~17:15
    - 발표: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세계선거재판회의
  - 세션3(인권과 헌법재판) / 9. 4.(화) 09:30~12:20
    - 발표: 아르헨티나, 이집트, 과테말라, 대한민국, 키르기즈,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 세션4(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 9. 4.(화) 14:00~15:15
    - 발표: 프랑스, 대한민국, 터키, 김성수 교수

### 제3회 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안내

- 논문주제: 민사법과 관련한 논문, 입법제안(법률개정 제안), 판례평석 등 자유주제
- 논문작성요령: '민사법학'의 투고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응모마감: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심사결과: 응모자에게 이메일 주소로 논문 1차 심사결과 개별 통지
- 경연일자: 9월 말 - 10월 초 (예정)
- 경연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예정)
- 시상일자: 2018년 10월 추계학술대회
- 수상혜택: 시상과 함께 학회에서 요약 발표 및 학회지 투고 기회 부여

### 형사법 관련 6개학회 7월 7일 수사권 조정 특별학술회의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형사법 관련 6개 학회는 '검정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들 학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구성할 것인지는 ‘기관간 권한배분’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회장단은 형사법과 형사절차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해 향후 국회에서 논의 및 입법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별학술회의는 지정 발표와 토론 외에도 플로어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학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창립총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7월 16일 자문기구 양형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세션에서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바람직한 양형’을 주제로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 문제’를 주제로 합의와 관련된 양형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 동정

### 정찬형 명예교수(고려대학교/상법학)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7월 27일 정찬형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법의 대가’로 불리는 정 교수는 충북

대와 국립경찰대, 고려대 등에서 33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다. 특히 우리나라 상법·유가증권법 및 금융법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저서 37편과 연구논문 340편을 집필하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겼다.